

대전의 사업체 유출입 현황과 시사점¹⁾

양준석 경제사회연구실 책임연구위원

1. 논의 배경

- 수도권 집중화와 골프존 등 대전의 유망 기업이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례로 기업의 탈대전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가중
-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물론이고 대전을 떠나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한 기업들의 업종, 운영 연수 등 기본적인 정보가 전무한 상태
- 기업이 지역에 그대로 머물며,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업의 탈대전 원인을 진단할 필요

2. 데이터 및 분석방법

-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대전 사업체²⁾의 유출입 현황을 파악
 - 이 조사는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대부분 사업체의 기본적 특성을 파악하는 통계로 원자료에는 사업체의 식별번호가 부여되어 지역간 이동 여부 파악이 가능
- 대전에 소재하던 사업체가 익년에 대전이 아닌 다른 사·도에 소재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체는 지역간 이동을 했다고 간주
 - 본 연구에서 사업체의 지역간 이동은 광역시·도간 이동을 의미
 - 기업 유치, 지원, 세제 혜택 및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정책은 광역 사·도 단위로 시행되기 때문에 광역시·도간 사업체의 이동 패턴과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

3. 대전 사업체 이동 현황

연도별 유출입 현황

- 2012년~2021년 동안 대전광역시로 유입된 사업체는 473개, 유출된 사업체는 800개로 집계
 - 대전에서 사업체 1개가 유출될 때 0.59개의 사업체가 유입
- 해당 기간 대전의 사업체 이동률은 평균 0.13%를 기록
 - 이동률은 전체 사업체 대비 유입과 유출된 사업체 비중으로 계산
 - 같은 기간 전국의 이동률은 0.07%를 기록
- 이동사업체 수 추이를 살펴보면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에 105개를 기록한 이후 2013년, 2015년,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100개 이상의 사업체가 이동

표 1. 대전 사업체 유출입 현황 (2012~2021)

(단위: 개, %)

연도	유입 (A)	유출 (B)	유입/ 유출 (A/B)	이동 기업 (C=A+B)	유입/ 유출 (D)	이동률 (C/D)
2012	31	74	0.42	105	83,460	0.13
2013	36	48	0.75	84	86,382	0.10
2014	45	63	0.71	108	86,740	0.12
2015	19	43	0.44	62	90,545	0.07
2016	66	102	0.65	168	96,917	0.17
2017	47	103	0.46	150	97,356	0.15
2018	74	110	0.67	184	99,050	0.19
2019	63	97	0.65	160	98,481	0.16
2020	35	60	0.58	95	105,044	0.09
2021	57	100	0.57	157	137,994	0.11
합계	473	800	0.59	1273	981,969	0.13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통계청

1) 본고는 2024년 수행 중인 기본과제 「기업의 지역간 이동에 관한 연구」의 일부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이다.

2) 「전국사업체조사」는 기업이 아닌 사업체 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사업체는 단독사업체, 본사·본점·본부, 지사·공장·지점·영업소로 분류되는데, 지사·공장·지점·영업소의 경우 기업은 될 수 없으나 사업체는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동은 기업과 지사·공장·지점·영업소 등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다.

산업별 유출입 현황³⁾

- 산업별로 살펴보면 대전에서는 제조업(134개), 도소매업(258개), 숙박 및 음식점업(53개)에서 유출입이 많이 발생
 - 해당 사업체들의 이동 빈도가 높은 이유는 일차적으로 모수 자체가 많기 때문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62개)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체 이동 건수가 관측되는 것이 특징
 - 대덕연구단지, 카이스트 등의 영향으로 관련 기업의 이동이 많은 것으로 추측

표 2. 산업별 유출입 현황

(단위: 개, %)

산업	유입 (A)	유출 (B)	이동 기업 (C=A+B)	유입/유출 (A/B)
농업, 임업 및 어업	0	0	0	0.00
광업	0	0	0	0.00
제조업	34	100	134	0.3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	1	3	2.0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0	3	3	0.00
건설업	52	69	121	0.75
도매 및 소매업	108	150	258	0.72
운수 및 창고업	21	38	59	0.55
숙박 및 음식점업	22	31	53	0.71
정보통신업	19	30	49	0.63
금융 및 보험업	2	5	7	0.40
부동산업	28	34	62	0.8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5	37	62	0.6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2	15	27	0.8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	1	1	0.00
교육 서비스업	3	16	19	0.1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	7	12	0.7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	3	3	0.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	32	41	0.28
합계	342	572	914	0.60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통계청
주 : '16~'21년 합계

-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 사업체의 유출이 타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
 - 2012년에서 2021년까지 100개 업체가 대전에서 빠져나갔으나, 유입된 사업체는 34개에 불과
- 대전은 인근지역에 비해 높은 지가와 상대적으로 부족한 산업용지로 제조업 사업체 유출이 쉬운 구조
 - 제조업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설비 확장 등을 위한 넓은 부지가 요구

종사자규모별 유출입 현황

- 5인 미만 종사자 기업의 유출입은 총 809개로 전체의 64%를 차지
 - 규모가 작은 사업체의 이동이 빈번한 원인은 이동시 고려할 비용과 조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
 - 반면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동에 따르는 비용이 증가

표 3. 종사자 규모별 유출입 현황

(단위: 개, %)

종사자규모	유입 (A)	유출 (B)	유입/유출 (A/B)	이동사업체 (C=A+B)
5인 미만	312	497	0.63	809
5~10인 미만	84	148	0.57	232
10~20인 미만	41	76	0.54	117
20~50인 미만	21	52	0.40	73
50~100인 미만	9	15	0.60	24
100인 이상	6	12	0.50	18
합계	473	800	0.59	1,273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통계청
주 : '12~'21년 합계

지역별 유출입 현황

- 대전의 사업체가 가장 많이 이전하는 지역은 충남으로 218개의 사업체가 이전 그 뒤로 세종(205개), 충북(112개) 순
 - 충청권으로의 유출이 전체 유출의 69%로 나타나 사업체들은 주로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
 - 사업체 유입도 충청권에서 주로 이루어짐, 충남에서 120개의 사업체가, 세종과 충북에서 각각 60개 사업체가 유입

3) 산업별 유출입 현황의 경우 시간적 범위가 다른 분석과는 달리 2016년부터 시작된다. 2016년을 기점으로 표준산업분류가 9차에서 10차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이전 자료는 제외하고 분석했다.

■ 충청권 다음으로 수도권의 유출이 많았는데 경기로 이전한 사업체가 90개, 서울과 인천이 각각 60개, 13개로 집계

■ 특이한 점은 서울에서 대전으로 유입된 사업체가 78개로, 대전에서 서울로 떠난 사업체(60개) 보다 많음

- 대전 사업체가 서울로 1개 유출될 때, 서울의 사업체 1.3개가 대전으로 유입

- 800개의 사업체가 대전을 떠나면서 사라진 일자리수는 10,629개로 집계⁴⁾

■ 대전 소재 사업체의 이동은 지리적 근접성과 수도권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대전은 지리적 근접성, 산업 특성, 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한 정책을 통해 사업체 유출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사업체를 유입할 수 있는 전략 필요

■ 제조업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 및 기존 산업단지의 확장을 통해 성장 가능성을 가진 제조업체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 제공 필요

■ 카이스트, 대덕연구단지 등 과학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 유치 전략 강화
- 기업의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거나, 기술 기반 기업의 이전을 지원하는 제도(세제 혜택, 금융지원 등)를 통해 R&D기업에 유리한 환경 구축

표 4. 지역별 유출입 현황

(단위: 개, %)

시도	유입 (A)	유출 (B)	유입/유출 (A/B)	이동사업체 (C=A+B)
서울	78	60	1.30	138
부산	12	17	0.71	29
대구	8	8	1.00	16
인천	7	13	0.54	20
광주	8	10	0.80	18
울산	5	0		5
세종	60	205	0.29	265
경기	60	90	0.67	150
강원	8	6	1.33	14
충북	60	112	0.54	172
충남	120	218	0.55	338
전북	28	24	1.17	52
전남	3	15	0.20	18
경북	10	12	0.83	22
경남	5	8	0.63	13
제주	1	2	0.50	3
합계	473	800	0.59	1,273

자료 :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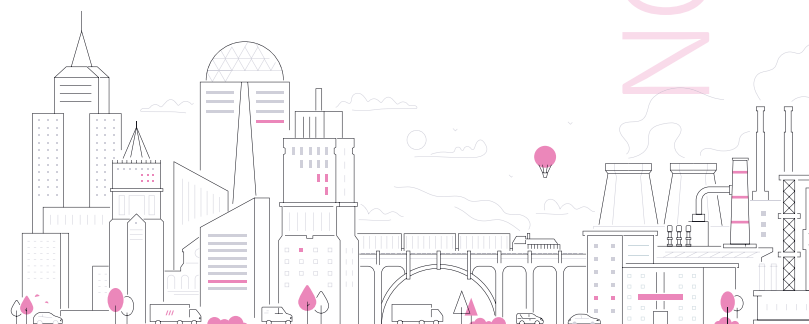
주 : '12~'21년 합계

4. 시사점

■ 2012년에서 2021년 동안 대전을 떠난 사업체는 800개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사업체 대비 0.13% 수준

■ 대전의 사업체 유출 현상은 심각하지 않으나 사업체 유출이 누적되면 지역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음

- 같은 기간 타지역에서 대전으로 유입된 사업체는 473개에 그쳐 327 개의 사업체가 순유출



DAEJEON

4) 대전에서 타지역으로 떠난 800개 사업체 종사자 수의 합이다.